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379호

의 안 명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

대상기관(또는 관계기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한적십자사

의 결 일 2023. 4. 24.

주 문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및 대한적십자 이사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4월 24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정 승 윤

위 원 박 중 민

위 원 박 상 희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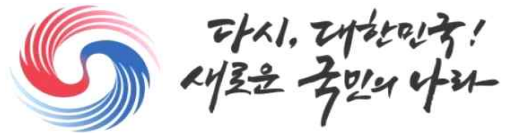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목

위 원 송 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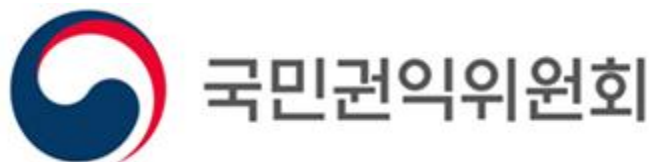
위 원 홍 세 욱

【별지】



「대통령실 국민제안센터를 활용한 제도개선 발굴과제」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

2023. 04.



I. 추진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국민의 작은 목소리(민원·제안·청원)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정부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고자 노력

※ 국민제안센터 민원 발생량('22.06.23 ~ 12.31) : 총40,812건('23.01.16. 기준)

- ▶ 제안·민원 : 27,048건(66.3%)
- ▶ 청원 : 13,206건(32.4%)
- ▶ 동영상 제안 : 558건(1.3%)

- 그러나, 생활 속 작은 불편의 안이한 대응, 반복적 민원의 개선 지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한 배려 부족 등 미흡한 부분에는 지속적 개선으로 수요자 중심의 제도 정비 및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
- 이에, 국민제안 내용 중 민생과 밀접한 사항, 다수가 경험하는 반복적 불편 및 규제개혁 등은 적극적으로 선별하여 관계기관의 채택·불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 추진

- 이번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 제도개선도 ‘국민제안의 정책화’라는 새정부 국정운영 원칙 아래 추진

- 저출산·고령화와 연계되어 혈액 부족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혈액 지원체계가 위협받는 실정

※ 올해 헌혈수급 위기 전망... 효율적 관리 필요성 제기('23. 2월, 언론기사)

-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청원(22.11.02.) 사항 중 헌혈 확산에 관한 제언을 적극 검토하여 혈액 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선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

- **(혈액 보유량)** 최근 4년(2018~2021년) 기준으로 실제 혈액 보유량은 5,236 Unit(단위)에서 4,945 Unit(단위)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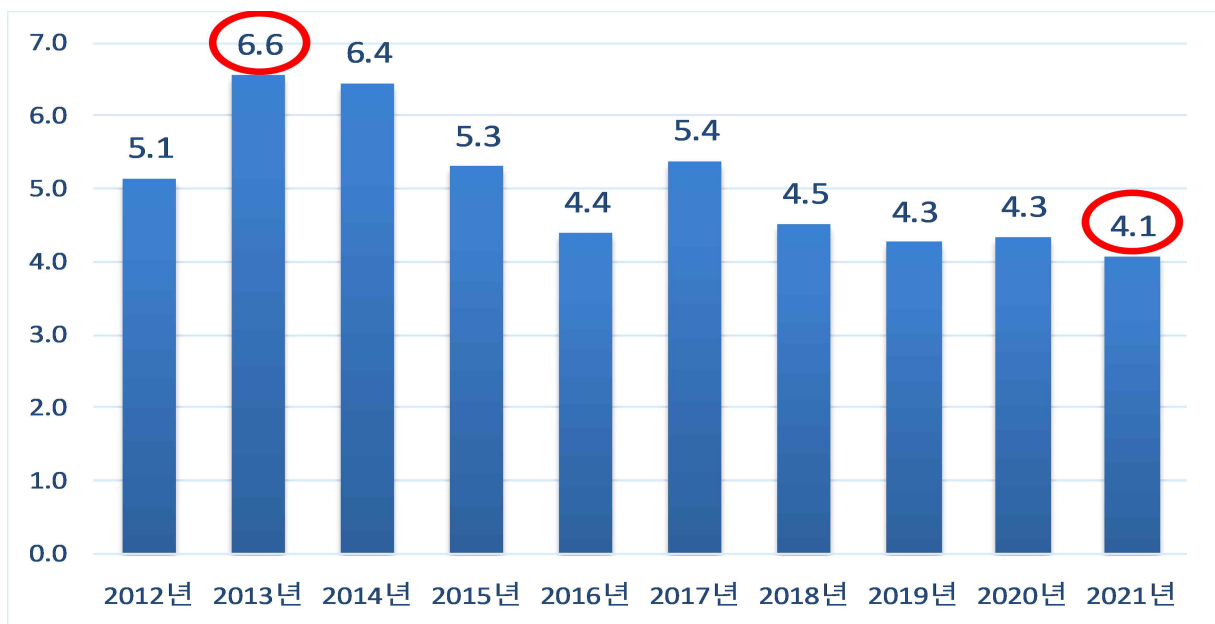
(단위 : Unit)

연도 \ 혈액형	계	O	A	B	AB
2018년	5,236	1,469	1,802	1,379	586
2019년	5,199	1,462	1,774	1,375	588
2020년	5,277	1,481	1,811	1,390	595
2021년	4,945	1,399	1,685	1,311	550

- **(혈액 보유일수)** 최근 10년(2012~2021년) 기준으로 혈액 보유일수는 2013년 최고치인 6.6일에서 2021년 최저치인 4.1일로 단축

※ 혈액은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어렵고 조기 사용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혈액 보유량보다 혈액 보유일수를 주로 활용

(단위 : 일)



- **(예비군 훈련시간)** 예비군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 예비군 훈련 종류 및 시간 >

구분			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예비 시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사무소)	
신규 전역(간부/병)			160 시간	전역한 해 : 훈련 없음				160
병	1~4 년차	동원지정		2박3일				132
		동원미지정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128 (132)
	5~6 년차	동원미지정				8시간	12시간 (6HX2회)	140
	7~8년차			비상연락망 점검 2회(전화통화) - 훈련내용 없음				160
간 부	1~6 년차	동원지정		2박3일				132
		동원미지정			2박3일			132
	7년차~연령정년			비상연락망 점검 2회(전화통화) - 훈련내용 없음				160

- **(민방위 대원 훈련시간)**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 연도별 공지되는 ‘민방위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세부사항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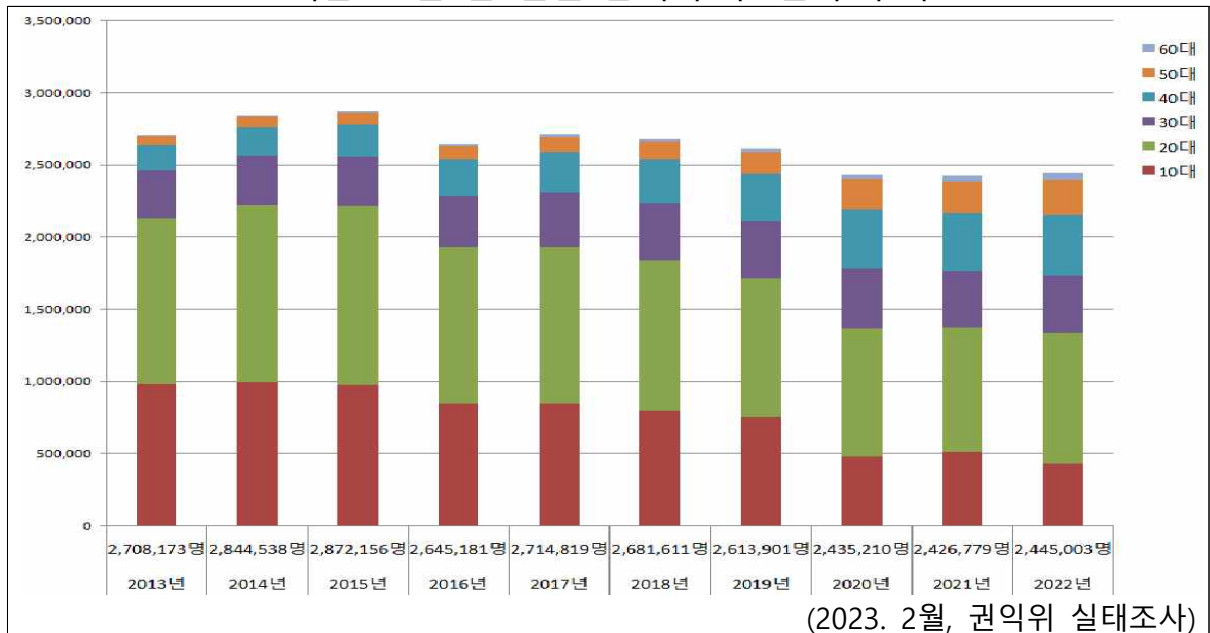
< 민방위 대원 교육 종류 및 시간 >

구분	교육 시간	교육 방법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2~4년차	4시간	집합,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40세)	1시간	비상소집, 사이버, 참여형 교육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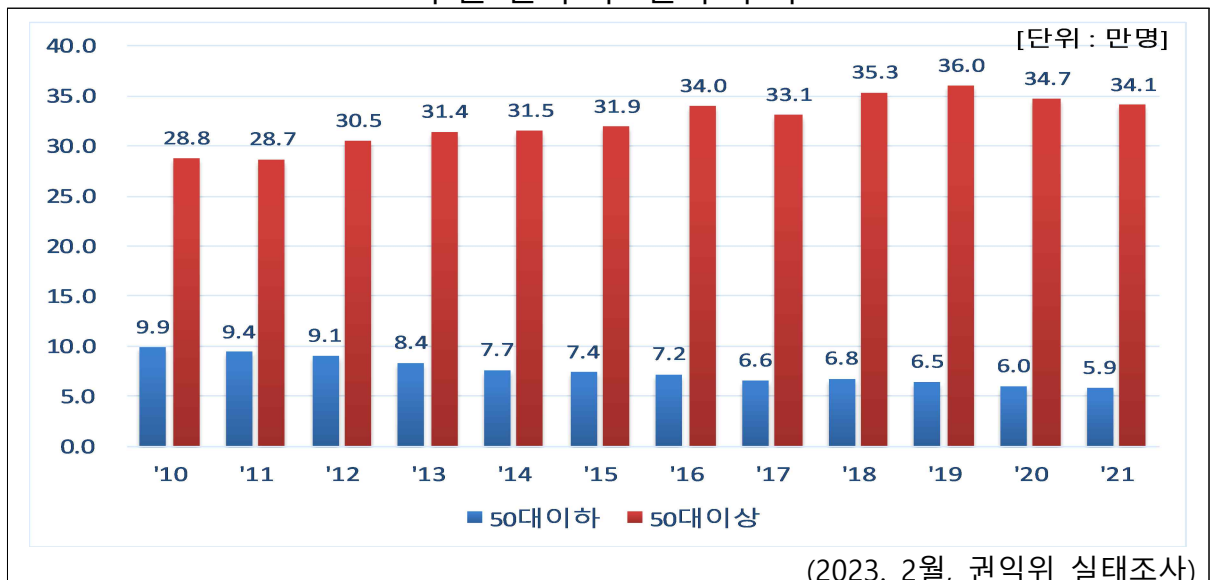
- **(혈액 보유량 감소로 국민안전 위협)** 최근 10년간 헌혈가능인구인 16~69세의 헌혈 참여가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하면서, 혈액 보유량 부족으로 인해 생명 연장과 국민 안전 확보가 위협받는 상황

< 최근 10년 간 헌혈 참여자 수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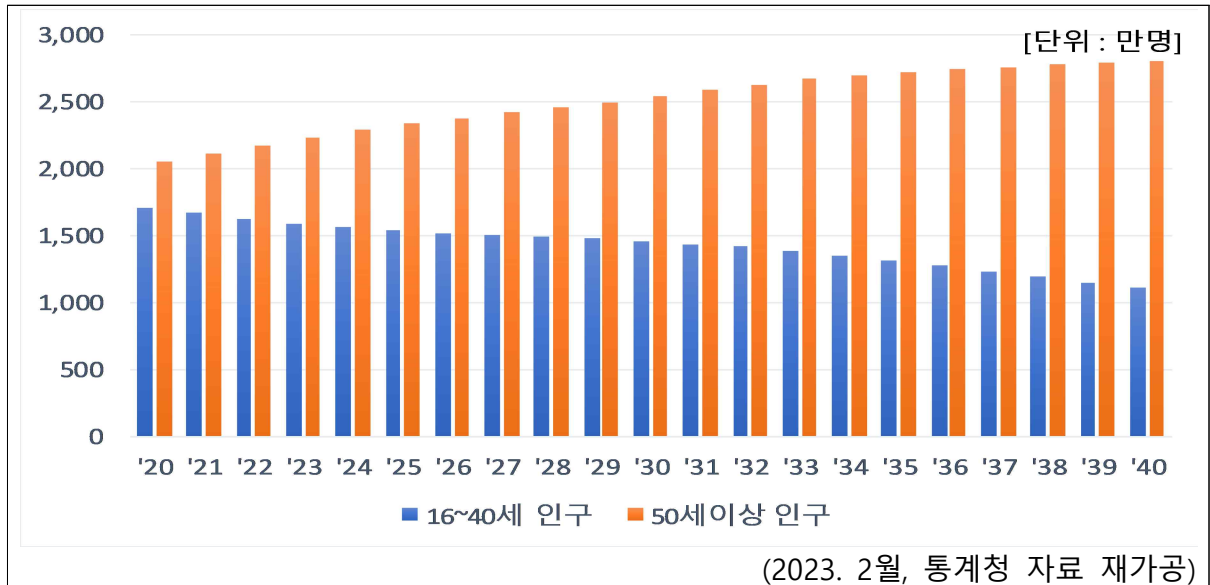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주된 수혈 세대인 50세 이상은 증가하는 반면, 공급 계층인 16~40세는 점차 감소하여 미래세대의 안전에 대비 필요

< 수혈 환자 수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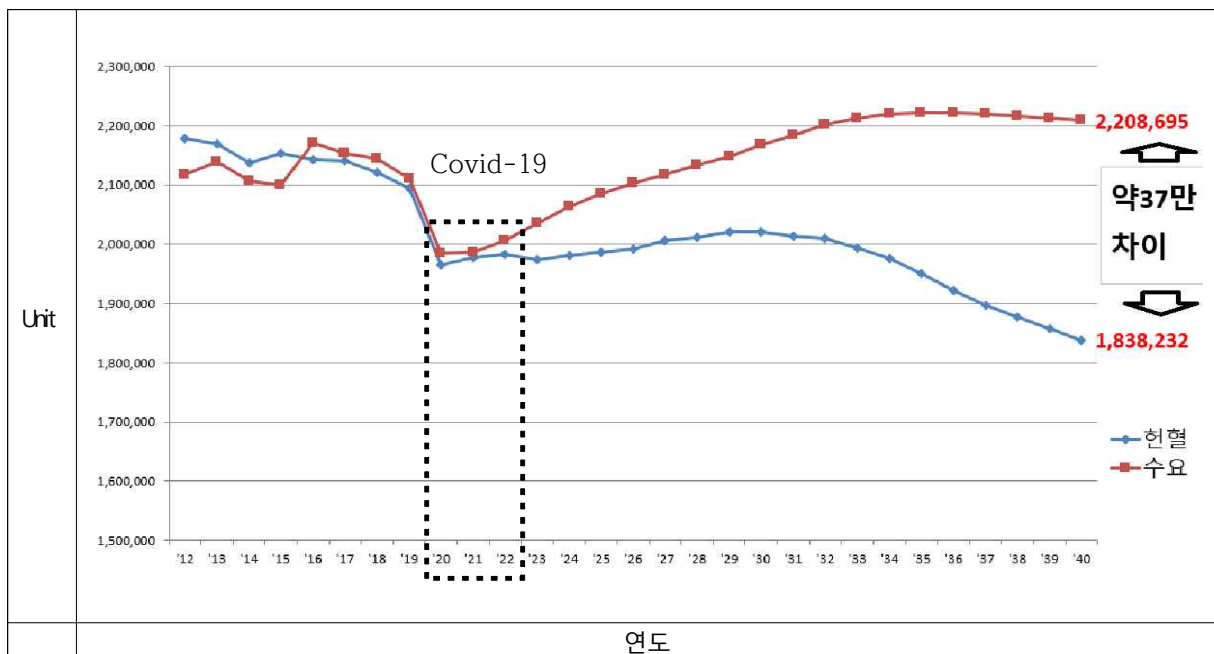
- 인구 측면에서도 저출산·고령화로 50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16~40세는 계속 감소 추세

< 연령별 인구 추이 >



- 대한적십자사는 감소추세에 있는 헌혈량 및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헌혈량과 수요량의 양자 간 차이는 2040년에는 37만 Unit(단위)을 넘을 정도로 혈액부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헌혈 및 수요 간 추이 예측 >



< 헌혈량 및 실제수요·예측 치 세부 현황 >

구분	연도	적혈구제제			
		(전혈) 헌혈량	실제 수요	수요 예측	헌혈량 - 수요 예측
실적	2012	2,178,750	2,097,960	2,118,032	60,718
	2013	2,168,875	2,079,633	2,139,724	29,151
	2014	2,137,402	2,064,215	2,107,406	29,996
	2015	2,153,876	2,091,378	2,098,918	54,958
	2016	2,143,208	2,048,496	2,172,213	-29,005
	2017	2,139,935	2,048,779	2,153,573	-13,638
	2018	2,120,991	2,045,392	2,144,329	-23,338
	2019	2,094,144	2,041,538	2,109,578	-15,434
	2020	1,964,633	1,915,227	1,983,823	-19,190
	2021	1,977,098	1,914,996	1,986,271	-9,173
예상	2022	1,982,727		2,005,977	-23,250
	2023	1,973,650		2,035,573	-61,923
	2024	1,980,998		2,063,167	-82,169
	2025	1,986,033		2,084,829	-98,796
	2026	1,992,192		2,102,635	-110,443
	2027	2,006,569		2,118,252	-111,683
	2028	2,011,691		2,133,532	-121,841
	2029	2,019,867		2,148,479	-128,612
	2030	2,019,987		2,167,118	-147,131
	2031	2,013,461		2,184,761	-171,300
	2032	2,009,120		2,201,396	-192,276
	2033	1,994,316		2,213,227	-218,911
	2034	1,976,513		2,219,370	-242,857
	2035	1,951,261		2,220,932	-269,671
	2036	1,921,839		2,221,536	-299,697
	2037	1,897,303		2,219,826	-322,523
	2038	1,876,989		2,216,285	-339,296
	2039	1,857,292		2,212,540	-355,248
	2040	1,838,232		2,208,695	-370,463

(2023. 2월, 대한적십자사 자료 재가공)

- **(전시 등 비상시 안전검사 불안 가중)** 혈액 활용을 위해서는 질병 검사 등 안전성 확인을 위한 혈액 적격성 검사가 필요*하나, 전시·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군소요 충당을 위해 선별검사 불가
 -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혈액선별검사가 생략되고 혈액부족과 공급 지연까지 더해질 경우, 전시 국민 불안은 가중될 우려
 - 비상 시 수혈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비군·민방위 대원 등을 통해 평시 다수의 헌혈이력, 질병이나 감염병 이력 등 정보 축적 필요

※ 매독·간기능 등 검사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수혈자의 안전 확보가 곤란

- **(헌혈 확산 성공사례의 적극 활용)** 실제로, 코로나 확산 당시 예비군 민방위교육에서 헌혈이력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성공적 개선사례는 행정현장에 적극 재반영 필요

※ 국민제안시스템, 국민신문고 등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가능한 통로에서는 헌혈 이력의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구가 수시로 제기

【국민제안센터 접수 청원내용('22.11.02.)】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헌혈 수급이 어려웠음.

그 때 한시적으로 헌혈을 하면 예비군, 민방위 1시간 훈련 인정이 되었음.

고등학교 때 2번 헌혈을 한게 다였고, 30살 때까지 잊고 살던 차에 훈련 1시간을 인정하는 포스터를 보고 헌혈하였고, 이후 꾸준히 하고 있음.

헌혈은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은데,
강제적으로도 헌혈을 접할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2030 남자들이 헌혈을 많이 하고, 남자들은 예비군 민방위를 필수적으로 가기 때문에 훈련 인정 제도를 계속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봄.

【국민제안센터 접수 청원내용('23.02.23.)】

요즘 혈액수급이 많이 어렵다고 함.

23. 2월 기준, 혈소 보유량이 1.4일분이고, 혈소판의 경우 다른 헌혈에 비하여 조건이 까다롭고 실제로 젊은 남성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본인도 혈소판이 부족하다 하여 계속 혈소판 헌혈을 하고 있음. 이 때 채혈시간, 대기시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3~4시간 정도 소요됨.

국가에서 30대 남성들에게 예비군 오라 하는데 헌혈하면 인정시간 차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지, 생업도 바쁜데, 너무하다고 생각함.

한시적으로 교육 인정 되었는데 이 제도를 확대해 주었으면 함.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내용 요약('19.08.07.)】

평소 헌혈 기회가 없는 30대 직장인인데, 민방위 훈련 시 헌혈하고 싶었으나 헌혈차가 없어 물어보니 정부가 민방위 훈련 중에는 헌혈할 수 없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함.

대원들이 교육에 충실히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데 민방위 교육 4시간 앉아있으면서 금연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비흡연자에게는 쓸모없지만 국민건강, 보건증진 관련 편성이라면 헌혈도 마찬가지로 보임.

같은 내용의 반복교육이나 금연교육을 나쁘다는게 아님. 비흡연자에게 금연교육 대신 헌혈 기회 부여 등 다양화가 좋다고 생각됨.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내용 요약('23.03.20.)】

20년 21년 헌혈을 통하여 22년 감면 받아서 헌혈 감면제도를 알고 있던 예비군인데, 올해부터 헌혈 감면제도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 항의 하고자 함.

이 제도를 혈액 부족으로 실행한건 알고 있으나, 최소한 제도가 폐지된다면 꾸준히 사전 공지를 해 주어야하는건 아닌지? 꾸준히 헌혈 하던 사람에게 예비군 감면을 기대하고 했냐는 답변도 당황스럽기도 함. **다시 재개해 주시기 바람.**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내용 요약('23.03.22.)】

7년차 예비군임. 원래 작년에 예비군을 끝마치고 유선 통지를 받으면 되었지만, 훈련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올해 또 예비군을 받게 됨.

작년엔 헌혈을 통해 예비군 훈련을 총 4시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훈련 시간 감면 적용에 대한 안내가 전혀 되지 않았음.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작년에 주어졌던 특례를 올해 받을 수 없게 되면, 그것 또한 불공평하다고 보며, **훈련시간 단축 특례 적용 조치해 주시기길 부탁드립니다.**

※ 그 외 훈련시간 인정 사례(예시)

- ① 정관수술자의 예비군 훈련 잔여시간 면제(1982년) : 인구 억제 목적
- ② 군 혈액공급에 관한 협약(1982년) : 헌혈차량을 동원하여 현장에서 체혈
- ③ 헌혈자 예비군·민방위 훈련 이수 처리 : 코로나19 확산·집합교육 제한

□ **개선방안** (「국민제안센터」 접수 청원(22.11.02) 사항)

- 헌혈증을 제시한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교육’ 대상자에 대해 교육 훈련의 일정시간(ex 동원·참여형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1시간 등) 이수처리 인정**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헌혈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해 봉사 활동실적 인정 등 형평성 제고 방안 별도 검토

- 헌혈자의 **혈액이 기부된 경우 일정기한 내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안내**(SNS 등 활용)

※ 대한적십자사에서 적극적으로 헌혈 확산을 위한 유도

Ⅲ. 조치사항

- 권고연월 : 2023. 4월
- 대상기관 :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대한적십자사
- 권고사항 및 조치기한

구분	권고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	○ 헌혈증을 제시한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교육' 대상자에 대해 교육훈련의 일정시간* 이수처리 인정 * (Ex) 동원·참여형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1시간 등	국방부	'23.10월
		행정안전부	
	○ 헌혈자의 혈액이 기부된 경우 일정기간 내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안내(SNS 등 활용)	대한적십자사	'23.10월